

## 한 농민의 입장에서 본 농촌지도사업의 지방화 현실

김 정 윤

### A Farmer's View on Localization of Extension Services

Jung Yun Kim

Milyang, KyungNam Province

5월 22일 KBS 제일라디오 "밝아오는 새아침"에서 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97년 지자체에 이관된 후 어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역간의 정보교류는 단절되고, 농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처럼 대접받고 있습니다. 신재배기술 신품종은 물론 병해충이 발생해도 문의하고 상담할 기구가 1차·2차 구조조정에서 축소되고, 전문지도요원은 퇴출되어 이름만 농업기술센터가 있을 뿐입니다. 전문지도요원의 충원이 없이 일반행정요원으로 충당하고있어 농사기술에 대한 상담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마는 행정태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은 농사에서 발생하는 기술 지도를 받을 곳이 없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교수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면적은 799.022km<sup>2</sup>이고, 인구는 128,000명, 농경지는 16,815ha, 농가는 14,700호이고, 농가 인구는 45,000명 이 중 시설재배면적은 2,411ha이며 지역총생산의 80%를 농업생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농업도시이지만 지자체에 이관된 후 농업은 완전히 침체되고 농업은 대외체면치레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 식부면적이 90년대 초반에는 11,000ha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줄어 98년도 8,385ha로 줄고 있으며, 시설재배농지 50,000평을 시민체육시설 및 부유층을 위한 놀이시설을 한다면서 빼앗아버렸고, 그 외 택지 조성, 체육관시설에 농경지를 마구 훼손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민이 힘을 모아서 건축한 농민회관마저 힘있는 단체의 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64년 농민이 대지를 기부채납하고 한미원조로 이 땅의 농업기술보급을 위하여 건축한 농촌지도소 건물(전국 동일건물)을 파괴하여 주차장을 만들고, 수로(水路)를 파괴하여 농사를 못 짓게 하는 정도는 보통이고, 95년 농촌지도 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市제정을 투자한 구 농촌지도소 건물 (현 농업기술정보센터)(市 재정 38억 정도)에 "주식회사"간판이 나붙고, 97년 이전의 시설물 (토양검정실, 생활개선시설, 조직배양실, 가축검진시설, 농기구 수리시설)은 전문기술요원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의 활용을 권하는 농민에게 "농사에 무슨 기술이 있느냐?"는 등 농업을 천시하는 자자체에 우리 농업을 맡겨둔다는 것은 국가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술지도공무원이 53명 있었으나 지금은 18명(5명은 생활개선요원)이 방대한 농업기술정보

를 접목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교환한다지만 현실은 20% 정도가 PC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 역시 학생이 있는 농가는 다소 도움이 되는 실정입니다. 시골에서 인터넷을 연결한다는 것은 한가한 사람의 오락밖에는 안되고, 또 연결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결과는 통화료만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농민은 재배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전화 연락만으로 지도요원이 방문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대책을 알려주는 지도공무원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못해 기술보급 민간단체를 조직, 기술지도를 하고자 하나 역부족이고 대학을 마치고 농사에 뜻을 가지고 고향에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태와, 전업농 신청도 유야무야인 실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식량자급을 진심으로 원하고 먼 훗날까지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전문분야별로 대량 양성하여 농촌에 지속적으로 대량공급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기술 정보를 우리 농업에 체계적으로 접목하여야 합니다.

치열한 국제사회 경쟁에서 살아남은 길은 국가사업으로 환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때에는 농민의 작은 힘이라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23일 경남 밀양시 내일동 431

김정윤 <kjunyun@ppp.komet21.net>